

# 언택트 수업 교권침해 여전 '교사는 괴롭다'

### 광주교육청, 올 상반기 모욕·명예훼손 등 15건...성 관련 사례 증가

올 한해 언택트 수업이 일반화됨에 따라 교권침해도 온라인상에서 이뤄지고 있어 교육청과 교사들의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4월 광주의 한 고등학교 온라인 수업 중 학생들이 접속한 화상에 남성 성기가 노출된 사건이 발생해 교사와 학생들이 충격을 받아야 했다. 학교 측은 며칠간 화상 수업을 중단했다가 재개했으며, 광주시교육청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결과 학생 중 1명이 온라인 수업 아이디·패스워드를 모바일 단채 대화방에 올린 정황을 확인하고 접속자를 추적해 다른 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검거했다. 이후 학교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수업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알려준 해당 학생에 대해 징계 조치를 취했다.

또 최근에는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교사가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업의 질을 비하하는 듯한 말과 행동을 해 교육활동 침해 논란이

유형별 교권침해	교권 침해 조치
모욕·명예훼손 8건	출석정지 7건
교육활동 부당 간섭 2건	특별교육 이수 3건
성적 굴욕감·혐오감 1건	교내 봉사 2건
성폭력 1건	전학처분 1건
학생에 의한 손괴 1건	기타 1건
학부모 폭행 1건	

일었다. 이에 대해 교사는 교권침해를 주장하며 학교측에 교권보호위원회를 열 것을 요청했고, 학교는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해 해당 상황에 대해 '조치없음'을 의결했다. 이에 학생 측은 교사의 과잉반응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코로나19로 대면 수업이 줄어든 상황에서도 학교 현장의 교권침해가 여전히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3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동안 발생

한 교권침해 건수는 총 15건이다. 코로나19 상황 속 학생과 교사가 직접 마주할 일이 적어지다 보니 지난해 같은 기간 35건에 비해 감소했으나 여전히 적지 않은 수치다.

일선 학교에서는 교권침해 사례가 발생하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약칭 교원지위법)에 따라 학생 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해당 학교의 교원과 학부모, 변호사 등 전문가를 위원으로 하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해당 학생에 대한 징계 여부 등을 논의해야 한다.

1학기(8월31일 기준) 교권침해를 유형별로 보면 모욕·명예훼손이 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정당한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가 2건으로 뒤를 이었으며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와 성폭력 범죄도 각각 1건씩 발생했다. 학생에 의한 손괴와 학부모 등이 가한 상해폭행도 1건씩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조치로는 학생에게는 출석정지가 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특별교육 이수 3건과 교내 봉사 2건, 전학처분·기타(상담, 사과 및 반성문, 학급

교체 등) 각각 1건 순이었다. 학부모 등을 상대로는 사과와 재발방지 서약, 학교장 면담 등 조치가 내려졌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개학 이후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면서 이와 관련한 새로운 유형의 교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온라인 수업 중 모욕·명예훼손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었으며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유형을 비롯해 성과 관련한 사례도 증가하는 추세다.

이러한 학교 내 교권 침해 증가와 관련 교육계에서는 교권에 대한 교육 강화와 법률적 지원 등 보다 광범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온라인 수업 등 새로운 환경에서의 교권침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교사들을 위한 상담 및 법률적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교권침해 사안이 심각해 정신적·육체적 피해가 커 심리상담 또는 치료를 받아야 하는 교원에 대해서는 관련기관과 연계해 주고 치료비도 지원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김대성 기자 bigkim@

## 목포대 '바이오 의약 분야' 4단계 BK21 사업 최종 선정

목포대학교의 '바이오 의약 분야' 연구 사업이 최근 교육부가 지원하는 4단계 BK21(두뇌한국21)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4단계 BK21 사업은 4차 산업혁명과 기술 진보에 따른 교육·연구의 변화와 고급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지속적 수요 증가에 대응해 우수한 석박사급 인재양성으로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에 목포대는 약학과, 생명과학과, 해양수산자원학과, 식의약자원개발학과 및 간호학과 교수진이 참여한 '서남권역 해양산림 자원 기반 바이오의약보건생명 전문인력 양성 사업단(이하 '바이오의약사업단')'이 선정돼 7년간 최대 국비 64억 5000만원을 지원받게 됐다.

이에 따라 목포대는 대학원 석박사 과정에 '바이오의약보건생명 융합학 협동과정'을 신설하고, 학문 후속세대 양성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됐다. 협동과정 신입생에게는 학문 후속세대가 안정적으로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장학금 및 신진 연구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바이오의약사업단은 지역산업 분야와 밀접한 실무형 교과목을 개발·운영하고, 산업체 연계 현장교육 및 해외 유수의 교육(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연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호남예술제 경연 중 3일 광주 서구 송촌동 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제65회 호남예술제' 실용무용 합창군무에 참가한 박우인 등 12명이 화려한 춤 동작을 선보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수능 1주전 전 고교 원격 수업

### 확진 수험생 12일부터 격리 대기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일주일 전인 오는 26일부터 고등학생들은 원격수업을 받는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은 수능 3주 전부터 병원·생활치료센터에 입원해야 한다.

교육부는 3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1학년도 수능 원활화 대책'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학생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수능 시험 일주일 전인 26일부터 전체 고교와 수능 시험장으로 지정된 학교들을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미 확진판정을 받은 학생은 거점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

질병관리청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공동 상황반을 구성해 시도별 확진·격리 수험생 수를 분석하고 시험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자가격리 수험생들이 시험을 치를 별도시험장은 시험지구별로 2개 내외로 확보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자가격리 수험생을 위해 110여개 시험장, 780명분의 시험실을 확보했으며 추후 감염병 상황에 따라 추가로 시험실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능 시험 당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지역 관공서와 기업체 출근 시간을 오전 9시에서

10시 이후로 조정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영어 영역 듣기 평가 시간(오후 1시10분~오후 1시35분)에는 항공기 이착륙, 포 사격 등 군사훈련이 금지된다. 시험장 근처에 군부대가 있을 경우 수험생 등교시간인 오전 6시~8시10분 사이를 피해 이동을 자제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수능 문답지 수송 보안을 위해 경찰 인력을 지원받고 문답지 인수·운송·보관 등 관리를 위해 전체 86개 시험지구로 교육부 중앙협력관을 파견해 비상 체제를 유지할 방침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코로나19 상황과 12월 시행이라는 수능 환경에서도 수험생들이 무사히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관계부처, 사·도·교육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 도심 과속단속카메라 3년새 두 배 늘었다

### 총 334대...적발 36% 줄어

광주 도심 안에 과속 단속 카메라가 증가하면서 과속하는 차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신호위반·과속 차량을 적발하는 고정식 단속카메라 개수는 2017년 148대에서 올해 334대로 2.25배 증가했다. 광주지역 단속카메라는 2017년 148대→2018년 170대→2019년 237대로 증가했으며, 올해의 경우 97대가 추가 설치되며 총 334대가 늘었다.

단속카메라가 증가하면서 신호를 위반하거나 과속을 하다 적발되는 차량들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 단속카메라를 통해 적발된 신호위반·과속 차량은 월 평균 3만 4775대(연간 41만 7303대)였으나, 단속카메라가 22대 추가 설치된 2018년엔 월 평균 2만 8356대( # 34만 273대), 67대가 추가 설치된 2019년에는 2만 5377대( # 30만 4532대)로 줄었다.

올해의 경우 10월까지 22만 2361대가 적발되면서 월 평균 2만 2236건 수준으로 2017년에 견줘 3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경찰 관계자는 "도심 일반도로의 제한 속도를 시속 50km 이하로 어린이보호구역 등 이면도로 제한 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낮추는 '안전 속도 5030' 정책이 확대되면서 단속 카메라 수가 늘었다"며 "단속카메라 증가로 도심 내 차량들의 평균 주행속도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전남혁신학교 활동가 토론회 전남교육청 4·5일

전남교육청이 전남혁신학교 10년을 돌아보고 미래형 혁신학교 건설을 위한 지혜를 모으는 자리를 마련한다.

전남도교육청은 4·5일 이틀 동안 순천과 광양·무안 등 세 곳에서 2020 전남혁신학교활동가 권역별 토론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동부권역은 4일 엘리시아웨딩컨벤션(순천), 서부권역은 5일 전남교육연구정보원(남양), 중부권역은 5일 공유광주센터(광주 진월동)에서 각각 진행한다.

도 내 128개 혁신학교를 포함해 모든 학교에 토론회 참석을 안내한 결과 동부권은 90여 명, 중부권과 서부권은 각각 40여 명의 교원들이 참여의사를 밝혔다.

도 교육청 혁신학교팀과 전남혁신학교지원센터는 전남혁신학교 10년의 역사를 돌아보며 선후배 교사들이 학교혁신 활동의 의미와 방향을 공유하고, 세대 간 지속성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손해보험협회

딱 한잔 드셨습니까?

2019년 6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되어 딱 한 잔만 마셔도 처벌되고 단속 시 처벌 수준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이대로 음주운전하시겠습니까?

meritz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MG손해보험, HeungKuk,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SGI서울보증, AIG, 하나손해보험, NH손해보험, KOREAN, BNP PARIBAS CARDIF, CHUBB, Carrot